

# 실패하는 빌둥의 윤리: 『출항』 속 윤리적 주체로서 레이첼의 수동성 다시 읽기

최 석 영

## I. 들어가며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첫 장편소설 『출항』(*The Voyage Out*) (1915)은 흔히 주인공 레이첼 빈레이스(Rachel Vinrace)의 실패한 혹은 비극적인 성장소설(Bildungsroman)로 읽히며, 많은 비평가들이 그녀의 수동성을 문제적으로 지적해왔다. 소설의 플롯은, 혼기가 찬 스물 네 살의 레이첼이 무역상인 아버지 윌로우비 빈레이스(Willoughby Vinrace)의 에우프로시네호(*Euphrosyne*)에 승선해 식민지로 향해하던 중 고모 헬렌 엠브로우즈(Helen Ambrose)의 제안으로 산타 마리나(Santa Marina)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소설가 지망생 테렌스 휴잇(Terence Hewitt)을 만나 약혼하지만 원주민 마을을 탐방 후 원인 모를 열병으로 갑작스레 죽음을 맞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표면을 보자면, 독자는 레이첼의 출항이 처음부터 그녀를 각기 자신들이 원하는 여성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월로우비와 헬렌의 계획에 따라 좌지우지되며, 그녀가 성장의 목적지로 예정된 결혼과 가부장제로의 편입 앞에 무력해지다가 결국 희생된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레이첼의 죽음에 대해 단순히 플롯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출항』의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해 읽을 필요가 있는데, 레이첼의 성장서사는 크게 두 줄기의 서사전통, 즉 조셉 콘래드(Joseph Conrad)의 『어둠의 심연』(*Heart of Darkness*)(1899)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탐방서사와 제인 오스틴(Jane Austen) 소설로 표상되는 결혼서사가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비틀어지는 지점에 위치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언급하듯 이 소설을 앞선 서사들에 대한 울프의 저항이자 다시쓰기로 볼 때, 원주민 마을 탐방 후 레이첼의 열병과 그로 인한 결혼의 불발은 단순히 빌둥(Bildung)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결말로 해석돼 왔다.<sup>1)</sup> 다시 말해 소설이 앞선 구혼소설의 전통을 전복하는 방향성에 있어 레이첼의 죽음은 그 자체로서 승리이자 해방으로 상징적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출항』과 레이첼에 대한 기존 비평들은 주로 문학사적 또는 동시대 작품들과의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출항』이 울프가 모더니즘으로 이행하는 분기점이 되는 소설이며, 레이첼이 소설의 모더니즘적 형식실험에 부합하는 주인공이라는 의의에 집중해왔다.<sup>2)</sup> 에스티는 『시기를 벗어난 젊음』

1) 대표적으로 수잔 스탠포드 프리드만(Susan Stanford Friedman)은 『출항』의 근본적인 모순, 즉 작가인 울프에게는 이 소설이 19세기 교양소설에서 여성의 운명이 결혼으로 규정되는 전통 플롯의 “압제”(tyranny)를 벗어난 “해방의 서사”(109)이지만, 주인공 레이첼에 있어서는 “실패한 빌둥”(원문 강조)으로서 “젊은이의 삶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저버린 슬픈 이야기”와 부딪히는 것에 주목한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부조화”(dissonance)를 소설의 두 서사로 분석하고 이것이 독자가 “전통적인 서사의 결말을 원하는 한편 그러한 엔딩이 함의하는 화합에 저항하는”(110) 두 갈래의 욕망이자 읽는 방식으로 발전된다고 주장한다. 제드 에스티(Jed Esty) 역시 레이첼의 비극에 대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pyrrhic victory, 131)이지만 그녀의 순수함을 상징적으로 입증하는 불가피한 결말로 긍정한다.

2) 마크 윌래거(Mark Wollaeger)에 따르면 『출항』은 울프가 콘래드와 콘래드적 주제를 연상시키는 레너드 울프(Leonard Woolf)의 식민지 소설, 『정글 속 마을』(*The Village in the Jungle*)(1913)을 의식하여 그들과의 “문학사적 삼각관계” 속

(*Unseasonable Youth*)(2013)에서 『출항』을 제국주의의 목적론적 서사를 뒤집는 반-성장소설로 읽으며, 레이첼의 수동성에 대해, 전통적인 성장서사를 저지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쓰임으로써 “남성화되고 국가주의적인 개념의 운명”(129)을 폭로하는 주인공들의 특성으로 분석한다. 에스티는 레이첼의 수동성을 서사의 기능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요소로 평가하지만, 캐릭터 자체로서는 “지성이 덜 발달한” 상태로 “자아강화(self-consolidation)와 자아소멸 사이를 오가”(144)는 인물로 분석한다. 애슐리 나도(Ashley Nadeau)의 경우 울프가 콘래드적 전통에서 그녀의 여성 탐험자들을 이동성이 결여되고 제국주의의 진실로부터 차단된 커츠(Kurtz)의 약혼녀 모델을 수정하여 발전시킨 과정에 주목하며, 그 중 레이첼은 초기 모델로서 그녀의 죽음은 상징적인 저항성을 갖지만 결혼 외의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문맥적 한계를 가진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레이첼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은 그녀의 수동성이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기제로 쓰이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녀 자체는 무기력하며 자아탐색의 과정에서 주체로 서지 못하고 운명에 수동적으로 휩쓸린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비평가들이 레이첼의 수동성을 비판하면서 흥미롭게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레이첼이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의 억압 속 소외된 여성들과 자신을 무분별하게 ‘동일시’(identification)한다는 것이다.<sup>3)</sup> 레이

---

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되 오스틴의 소설, 에드워드 시대 문학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미학을 구축하려고 분투한 결과이다. 울래거는 레이첼의 주체성을 논함에 있어 그녀의 예술가적 특성과 울프와의 연계성에 주목한다. 이들이 각각 음악과 문학의 영역에서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려는 성향을 볼 때 레이첼이 울프의 “현대적 감수성의 발생”(41)이자, “『현대 소설』(“Modern Fiction”)에서 논의되는 존재의 덧없음(ephemerality of being)을 예견하는 인물”(42)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3) 가장 문제가 된 장면은 본고 후반에 다룰 원주민 여성과의 대면 장면으로, 레이첼이 원주민 여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장면이 그녀가 곧 경험할 가부장제의 억압을 깨닫는데 꼭 필요한 순간으로 쓰이지만, 식민지 여성 주체가 레이첼의 깨달음을 위해 “목소리가 제거된 조력자”(a voiceless foil)로 착취되는 함정은

첼이 리처드 델러웨이의 전체주의적 세계관에 맞서 여원 혹은 과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장면, 문학작품 속 고통받는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직접 대면하듯 반응하는 장면, 그리고 원주민 마을 탐방 중 그곳 여성들에 대해 “저 여인들, 저 나무들과 강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270)이라 모호한 언급을 하는 장면 등에 대해, 비평가들은 대체로 그녀가 수동적이기 때문에 현 상황의 모순에 저항하기보다 약한 처지의 여성에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그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동일시’라는 분석 혹은 표현은 레이첼이 타자에 반응하며 관계 맺고 이를 통해 주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레이첼은 소설 여러 군데서 미지의 타자를 상상하고 응답하려는 열망을 드러내며, 이는 단순히 타자에게 자신을 이입하거나 동일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체의 응답을 명하는 타자의 ‘얼굴’에 반응하는 의미로서 윤리적 주체의 수동성을 드러낸다.

본고는 타자 철학의 관점에서 레이첼의 수동성을 기존 논의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주체의 특성으로 다시 읽는다. 타자 철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가 현상학적인 바탕에서 설명하는 주체는, 코기토적인 인식상의 자아가 아니라 타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경험을 하는 나 자신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현존 앞에 취약한 주체의 수동성을 주체

---

고려하지 않는다(17-18)는 비판이다. 올래거 또한 울프와 인종 문제를 다룬 다른 논문에서 『출항』이 원주민 여성을 그리는 방식은 그들을 “전 지구적 가부장제의 단순한 대상으로의 상징“(object-symbols, 44)으로 국한한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출항』이 제3세계 인물들을 그리는 방식에서 “제한적인 인종 관점”(Carr 210)을 드러낸다고 비판하는 평자들은 이를 울프의 제3세계에 대한 경험 혹은 인식부족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나 콘래드나 레너드 울프와 달리 울프는 자신의 경험에 바탕하여 식민지를 타자화하여 재현하기보다 『출항』에서 가상의 식민지를 배경으로 유럽 제국주의의 허상을 폭로하고 풍자하는데 중점을 둔다. 소설은 리처드 델러웨이(Richard Dalloway), 월로우비 빈레이스 같이 제국주의 가부장제를 대변하는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회화화하고 풍자하며, 특히 헬렌의 관점을 통해 월로우비가 그의 운수업에 식민 타자들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행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전달한다.

를 주체로 만드는 핵심으로 설명한다(OTB 50). 이 글은 『출항』을 읽는 기존의 후기식민주의 비평 및 페미니즘 비평의 비판적 논점들을 인정하되, 울프가 당대 영국사회의 관습에 미쳐 포섭되지 않은, 마치 백지와도 같은 상태의 레이첼이라는 인물을 창조하면서 여성과 남성, 제국과 식민, 더 넓게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어떻게 가정하고 전복하는지를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울프와 타자 철학을 함께 연구하는 최근의 비평 흐름은 레비나스를 페미니즘적으로 재해석하는 루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의 성차의 윤리와 “친밀함”(intimacy)에 주목해 『등대로』(*To the Lighthouse*)(1927)와 『달러웨이 부인』(*Mrs. Dalloway*)(1925)과 같은 대표작들을 주로 다루었다. 제시카 버먼(Jessica Berman)은 울프의 텍스트가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인 타자의 알 수 없음과 이리가라이가 주목하는 여성의 친밀함의 윤리를 연결한다고 주장하며, 엘사 헤그바리(Elsa Högberg) 또한 울프의 작품들이 “자아가 자율적인 독립체로 확장되는 것이 각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고유성을 인식하도록 격려”(5)하는 의미로서 “친밀함의 윤리”를 발전시킨다고 본다. 반면 『출항』에 관해서는 레이첼과 헬렌의 쿼어적 관계에 대한 간헐적인 논의 외에 소설에서 나타나는 친밀함의 윤리나 레이첼의 윤리적 가능성을 논하는 글은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논문으로 알렉산드르 프리고진(Aleksandr Prigozhin)은 『출항』에서 비개인적(impersonal)으로 전염되는 “사소한 친밀함”(minor intimacy)이 주체성과 사회성을 구성하는 기존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양상(284-85)에 주목하나, 몇몇 장면들에 한정하여 논한 바 있다.<sup>4)</sup> 『출항』에서 레이첼이 타자를 상상하고 이해하려는 열

4) 프리고진은 울프의 미학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비개인성(impersonality)이 친밀함과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져 있으며, 『출항』에서 결혼, 가정과 같이 수립된 형식으로서의 “주된 친밀함”(major intimacy)이 아닌 “사소한 친밀함”이 돋보이는 장면들에 주목한다. 프리고진은 『출항』의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절감하는 가운데 배, 호텔과 같이 개개인이 공존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 서술자가 묘사하는 비개인적이며 사소한 친밀함이 주체간의 벽을 투과한다고 분석한다. 그의 분석은 레이첼과 테렌스를 포함한 『출항』의 인물들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분리 돼있는 역설적 조건을 포착한다는 면에서

망이 일련의 사건마다 균일하게 표출되거나 결과를 드러내 보일 어떤 협의의 성장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소설에서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은 레이첼의 타자의 비전이 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가정과 모성의 영역으로 극히 제한하는 사회제도와 관습으로 인해 더 발전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지점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은 이후 울프의 주요 여성인물들의 특성, 즉, 『등대로』의 램시부인(Mrs. Ramsay)과 릴리 브리스코(Lily Briscoe), 『달리웨이 부인』에서의 클라리사(Clarissa Dalloway)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성적인 앎을 초월하는 친밀함을 추구하는 유형을 부분적으로 예고한다. 이 글은 레이첼이 타자와 대면하는 장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녀가 여성의 위치와 쓸모를 재단하는 사회의 억압에 저항하며 윤리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가능성들에 주목한다.

윤리적 주체로서 레이첼을 다시 읽는 작업은, 울프의 소설 중 『출항』이 모더니즘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작품으로서 주인공 레이첼을 그리는 방식과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이 서양 주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려는 작업을 연결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은 서양철학 전통에서 앎(knowing)의 주권자로 정의되어 온 존재론적 주체를 반성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는 주체의 앎 너머에 존재하며 ‘나’의 인식 대상으로 개념화되거나 한정되지 않는 초월성을 지닌다. 주체는 언제나 이 타인에게 응답하는 책임을 갖는 동시에 타인은 그의 인식이 포착할 수 없는 대상으로 남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타자의 관계로서 레비나스가 주창하는 “제일 철학으로서의 윤리”(ethics as first philosophy)는 어떠한 정치적 관계성에 우선한다. 그러나 이는 그의 철학이 사회·역사적 맥락과 벗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그가 홀로코스트로 가족을 잃고 망

---

소설 속 사회에 대한 본고의 기본적인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프리고진의 글은 울프의 다른 단편들을 더불어 분석하면서 『출항』과 레이첼에 대한 분석이 짧은 한편 상호주체성을 초월하는 비개인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레이첼의 수동적인 주체성을 윤리적인 특성으로 읽으려는 본고의 방향과 다르다.

명의 삶을 산 자전적 배경에 기초하여 나치즘을 비롯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폭력이 타자를 억압하고 주체성을 왜곡하는 양상을 비판한다. 레비나스가 비판하는 전체성이란 타자(alterity)의 무한성(infinity)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타자를 동일자의 존재론적 앞으로 환원시킨다. 이에 따라 레비나스는 제국주의를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쉽게 대상화되는”(men can easily be treated as objects, *II* 170) 이념으로 비판한다. 제국주의가 계몽과 발전, 연합이라는 미명 하에 제 3세계 국가들을 식민으로 종속시키고 지배를 확장한 것은 서양 전통에서 타자를 동일자에 환원시키는 인식의 폭력성이 역사의 한 단계에서 극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더니즘 문학은 근대 주체가 서양문명이 붕괴되는 역사적 맥락에서 주체성의 근본과 인식의 바탕을 의심하는 주제를 다루며, 그러한 점에서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급진적 의미로서의 윤리적 주체 개념과 접점을 가진다. 모더니즘이 발흥한 시기는 서구 제국주의가 정점을 찍으면서 그 만행 또한 드러나고, 다른 한편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모더니즘을 정의하는 방식은 무수하지만 넓게 말하면 모더니즘 소설들은 젠더, 계급, 인종의 차이에 따라 타자와의 관계에 근거하는 근대적 주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색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20세기 초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제국 주체와 식민 타자의 조우를 그리면서 제국주의가 궁극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양상을 목도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주체성의 본질을 질문하고 해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울프의 『출항』은 상기하였듯이 『어둠의 심연』의 전통에서 이후 포스터(E. M. Foster)의 『인도로 가는 길』(*A Passage to India*)(1924)과 더불어 유사한 서사를 보이는데, 경험이 부족한 영국 젊은이가 식민지 탐방에 나서서 (식민지와 원주민을 포함하는) 식민 타자를 알고자 하지만, 대지의 심장부로 들어가 식민 타자를 대면하자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그들이 결국 식민지에서 깨닫는 것은 타자가 자신들의 인식 안으로 포섭 불가능하며 자신들의 정체성 혹은 가치관의 기저 또한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여성 인물인 레이첼

과 아델라 퀘스티드(Adela Quested)의 경우 식민 타자를 대면한 이후 약혼자와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결혼이 불발된다.<sup>5)</sup> 이처럼 초기 모더니즘 소설들의 공통된 서사는 제국 주체의 인식론적 허상이 식민 타자와의 조우를 통해 폭로되는 양상을 그린다는 점에서 후기식민주의의 제국주의 비판과 타자 윤리의 존재론적 주체 비판을 연결한다.

초기 모더니즘 소설이 서구 주체의 인식론적 위기를 다루는 흐름에서 『출항』의 레이첼이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그녀가 식민지 탐험을 나서는 제국 주체이자 가부장제에 속박된 여성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으로부터 복잡한 결을 지니기 때문이다. 레이첼은 (커츠의 약혼녀와 같이) 제국 밖으로의 이동성이 결여되거나 제국주의의 실체로부터 완전히 가리워지지 않지만, (아델라처럼) 국제간 이동, 약혼과 파혼 등의 결정에서 주체성을 발휘할 만큼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젊은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야기의 결말을 생각할 때 『어둠의 심연』은 말로우를 통해 커츠의 죽음의 전말이 드러나고, 『인도로 가는 길』의 아델라는 동굴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타자가 자신의 환각이었음을 깨닫고 진술을 반복하지만, 『출항』은 레이첼이 왜 열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지 서사의 층위에서 충분히 설명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끝난다. 캐릭터로서 레이첼의 수동성은 울프가 많은 개정 끝에 레이첼을 주변 영국 인물들의 인식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타자로 그리면서 생성된 부분이기도 하다. 『출항』은 레이첼을 중심인물로 보여주면서도 그녀에 대해 다 설명하지 않으며, 어떤 국면에서는 서술자의 설명이 헬렌의 관점, 즉,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레이첼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자로 자청하여 관찰을 이어가는 시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손영주의 지적처럼, 반-성장서사로써 이 소설의 비판은, 그녀의 멘토라 자칭하는 중상류층 인물들이 레이첼

5) 이들의 파혼은 이성애적 결합을 거부하며 가부장제가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흐름을 차단한다. 세 소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는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 『불가능의 서사: 모더니즘 소설 속 알 수 없는 타자와 윤리적 상상력』(*Impossible Narration: The Unknowable Other and the Ethical Imagination in Modernism*)(2021) 본론 첫 번째 챕터를 참조.



을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며 성숙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려는 주체성도 부족한 인물”(65)로 “오독”하는 지점들을 드러내는데 중점이 있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레이첼이 사회의 편협한 관습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양적 측면에서 보자면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 레이첼의 수동성을 주체와 타자 간 관계 맺음의 근간으로 본다면, 레이첼의 자아실현과 주체성 확립 과정을 다르게 읽게 된다. 소설 속에서 레이첼이 독서를 통해 동시대 문학 속 인물들에 반응하며 ‘취약해지는’(vulnerable) 수동성은 서사 윤리에서 논하는 윤리적 읽기의 전형을 보여주며, 소설 밖 독자인 우리의 주체성의 윤리 또한 재고하게 한다. 본문에서는 레이첼이 제국의 한 부품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창문 너머 응답을 기다리는 타자를 상상하는 장면, 읽는 행위를 통해 텍스트 너머 타자에 응답하는 장면, 영속하는 제국주의의 비전에 저항하는 장면들을 살핌으로써 그녀가 타자에 응답하는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윤리적 주체로서 성장하는 측면에 주목한다.

## II. 창문 너머의 타자를 상상하기

레이첼이 자라온 배경에서 주목할 것은 그녀가 소통할 타인들 없이 고립되어 지내왔다는 것이다. 레이첼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모성이 부재하고 가부장 윌로우비가 그녀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두 명의 나이 들고 보수적인 고모들 밑에서 성장한다. 소설 초반 레이첼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은 성장소설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풍자적인 어조로 레이첼의 지성이 아직 변별력이 부족한 초보적인 수준이었다고 서술하는 한편, 그녀가 받은 교육이 “19세기 말 대부분의 부유한 집 딸들이 교육받는 식의”(26) 평범한 것이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빅토리안 시대 여성들이 받은 ‘평범한’ 교육이 근대 주체로서 필요한 지성을 갖추는데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시사한다.<sup>6)</sup> 서술자는 아이러니한 어조로 레이첼이 겉보

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중상류층의 가정에서 자랐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제멋대로 자랐기에, 두 고모와 아버지가 그녀가 숙녀로서의 “품행”(morals)을 지키도록 “지나치게 보호”하고 “검열”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레이첼이 그러한 ‘품행’이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을 만큼 영향력이 없었던 것을 꼬집는다. 이처럼 레이첼이 성장해온 환경은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여, 먼저는 그녀가 바깥 사회, 그리고 타인들과 관계 맺을 기회 없이 홀로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레이첼이 덜 사회화될 수밖에 없던 환경은, 다른 한편 그녀가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품행을 철저히 학습하며 자라지 않은 것으로 연결된다. 주로 음악에 몰두했지만 레이첼은 연주와 독서, 사색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삶의 이치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품은 채로 에우프로시네 호에 승선한다.

레이첼이 미지의 타인을 상상하고 이해하려는 열망은 순탄하게 유지되지 않고 부침을 겪는다. 레이첼의 성장배경과 더불어 그녀의 내면이 처음으로 서술되는 2장 후반은 타자를 알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이 좌절된 문맥들을 자유간접화법으로 설명하는데, 레이첼은 고모를 이해하려 대화를 시도했으나 소통이 좌절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누구도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한 적도 그들이 느낀 감정을 표현한 적도 없는 듯이”(28) 느낀다.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음악은 레이첼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창구이기도 하지만 소통의 엇나감이나 부자연스러운 관계로부터 그녀가 도피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소설은 레이첼이 속한 영국의 중상류층 사회가 타자에 대한 몰이해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동기에 대한 성찰 없이 ‘그런 체’(pretending)로 일관하는 양상과 그러한 행태들이 레이첼의 열망들을 어떻게 좌절시키는지를 폭로한다. 향해 초반 레이첼은 갑작스레 배에서 대면하게 된 아버지의 지인들, 즉 고모인 헬렌을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녀가 되어야 할 여성

6) 『출항』의 우리말 번역은 진명희 역본(2019, 솔)을 참조하되 필요에 따라 필자가 번역했음을 밝힌다.

상만을 강조하는 흐름에 고립감을 느낀다. “이 이상한 남자와 여자들을 . . . 특색은 없지만 위엄 있는, 무대 위의 배우들이 종종 그렇듯 아름다운, 나이, 젊음, 모성, 배움의 상징들로 생각하자”(29, 필자 강조)는 레이첼의 다짐은, 나와 타자가 서로를 고유한 주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녀가 알 수 없는 타자를 일반화하며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어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태도는 레이첼이 소설 전반에서 드러내는 타자를 향한 열망과 상반되는 것으로, 그녀는 줄곧 “그런 체”하는 영국인들 속에서 걸돌며 몇몇 평자들이 지적하듯 어느 순간 인류학적 시선으로 사람들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리처드 델러웨이와의 대면은 레이첼이 주체로서 타자를 마주하고 그 위협에 노출되는 전기로서, 타자를 향한 그녀의 열망이 어떻게 발현되고 좌절되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델러웨이 부부는 레이첼이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된 성인남녀이자 중산층 부부의 전형으로 인상을 남기는데, 특히 리처드는 레이첼에게 알 수 없고 철저히 타자인 남성으로 등장한다. 두 사람은 리처드가 잠든 채로 홀로 남겨지거나 술에 취해 갑판에서 비틀대다가 레이첼의 방으로 따라 들어오는 상황과 같이 서로 무방비인 상태로 마주하며, 이와 같은 독대는 이들이 서로에게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로 인해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레비나스적 관점에서 보면 타자란 나와 같은 유한(mortality)의 존재인 동시에 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앞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수동성이 주체를 주체답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첼이 리처드의 타자성에 응답하는 방식은 일면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적 주체의 특징들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레이첼은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이미 리처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를 자신의 관심을 요하는 타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자신에 대해 내세우는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이어 나간다. 특히 레이첼은 그가 고통에 대해—애완동물을 잃은 고통, 어린 시절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통스러웠던 것, 누이들과 함께 자란 기억 등—이야기하는 것에 반응한다. 두 번째 만남에서 리처드는 결국 강제로 키스하는

폭력으로 레이첼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 사건은 육체적으로서뿐 아니라 빅토리아 여성성에 반해 연기돼 있던 레이첼의 처녀성을 파괴하는 상징적인 폭력으로서 레이첼에게 지속되는 악몽을 초래한다. 레이첼은 그 폭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맥락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헬렌에게 리처드가 하는 얘기들에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작은 세계가 멋지게 확장”됐다고 이야기한다. 리처드와의 만남은 레이첼에게 끈질긴 트라우마를 남기는 ‘나쁜 만남’이 분명하며, 표면에 묘사되는 레이첼의 이러한 반응은 순진무구한 성격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sup>7)</sup> 그러나 타자 윤리의 관점에서 두 주체의 대면을 읽을 때 레이첼이 악한 타자라 할 수 있는 리처드의 현전에 반응하는 양상은 수동적인 주체의 윤리적 측면을 드러낸다.

반면, 리처드는 레이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경험과 지식, 남성으로서 가진 사회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로 설정한다. 그는 자아도취적인 성향의 정치가로 자신이 한 일 중 “랭카셔의 수천명의 여공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 맑은 공기를 마시며 쉴 수 있게”(56) 한 것을 떠벌리는데, 레이첼은 그가 자신은 가 닿을 수 없는 힘없는 타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감탄하며 관심을 보인다. 레이첼은 그러나 그가 대영제국의 “이상”(ideal)이라고 말하는 “통합”(unity), 즉, “목표와 지배와 진보의 통합,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를 분산시키는 것”을 이루기 위해 타자와 “애정”(affections)을 나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리처드는 레이첼에게 “유기적 조직체”(organism)이자 “전체”(whole)로서의 대영제국을 상상할 것을 주장한다.

---

7) 프리고진은 위의 문장, “그녀는 그의 슬로건-통합-상상력을 상기했으며, 그가 누이들과 카나리아들과 소년 시절과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해 말할 때 그녀의 차관에 거품들이 일어나며 그녀의 작은 세계가 멋지게 확장되던 것을 다시금 떠올렸다”(79)에 주목하여, 레이첼이 리처드 델러웨이와 만난 의미를 돌아보는 것은, 캐릭터로서 그의 결함들과 레이첼과 견해를 좁힐 수 없었던 그의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떠나서, “델러웨이가 레이첼에게 “세상을 하나의 전체로 상상”하는 도전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291).

세상을 하나의 전체로 생각해요. . . . 나는 대영제국의 시민이 되는 것 외에는—더 고귀한 목표를 생각할 수 없소.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빈 레이스 양. 국가를 하나의 복잡한 기계로 생각해봐요. 우리 시민들은 그 기계의 일부요. 어떤 사람들은 보다 중요한 의무들을 수행하며, 다른 이들은 (아마도 나도 그들 중 하나요) 대중의 눈에 띄지 않은 채로 그 기계장치의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부품들을 연결하는 일에만 종사하오. 하지만 이 과업에서 가장 하찮은 나사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전체의 정확한 기계 작업이 위태롭게 되는 거요. (57)

리처드는 국가를 “하나의 복잡한 기계”에 비유해 설명하며, 개인은 “제국의 시민”이자 기계의 “한 부분”으로 기능할 때 존재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창하는 전체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보다 중요한” 일과 아닌 일,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 등 위계화된 역할로 구분하고 제한하는 동시에, 어떤 위치에서든 개인이 주어진 역할에서 탈선할 경우 전체가 무너진다고 역설한다. 요컨대 리처드의 세계관은 타자를 규정함에 있어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한 위치와 역할로 도구화하며 전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축소한다. 리처드의 이 같은 관점은 타자로서 여성을 얘기할 때 두드러진다. 그는 아내 클라리사 델러웨이가 ‘집안의 천사’로서 육아 등 “가사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부장이 전체와 제국을 위한 공적생활을 “계속해 나갈”(56, 필자 강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분법적 젠더 역할을 역설한다. 그가 “아내의 환상은 깨지지 않았소”(56) 라고 말할 때 그의 가부장적 젠더 이념은 『어둠의 심연』에서 말로우가 여성은 제국주의의 진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들만의 아름다운 세계에 머물도록, 그래서 우리의 세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한다”(49) 고 말하는 수사를 상기시킨다. 이처럼 리처드가 대변하는 전체주의는 실체가 없는 “이상” 또는 “환상”이라는 구분으로 여성의 타자성을 한정하며, 제국주의의 진실로부터 여성의 삶을 제한한다.

레이첼은 리처드가 주장하는 “유기적 조직체”로서 제국의 비전에 의구심을 품으며 그 비전이 소외시키는 타자의 얼굴을 상상한다. 레이첼은

“리즈 근교에 자기 방에 있는 한 늙은 과부”가 “창밖을 응시하며 얘기할 상대를 찾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며 리처드의 전체주의적 세계관이 “애정이 닿지 않은 채로 남겨지는 과부의 마음(the mind of the widow—the affections; those you leave untouched, 57)을 소외시킨다고 비판한다. 레이첼이 상상하는 사회 속 주체들의 관계는 나와 타자가 서로 응답할 책임을 지며 그것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레이첼이 상상하는 타자가 다른 아닌 “창밖을 응시하며 얘기할 상대를 찾고 있는 여윈 흑인 과부의 이미지”(57)인 것은 그녀가 자신과 타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의 패턴과 딜레마를 함께 노정한다. 리처드와의 대면은 분명 레이첼로 하여금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미혼의 백인, 중산층, 여성—를 깨닫게 한 측면이 있다. “그녀는 사실 빈민가를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며 언제나 아버지나 하녀 고모들의 보호를 받으며 다녔”(56)인데, 이는 그녀가 사회-인종-계급적으로 특권층에 있는 한편 그러한 배경이 타자와 만나는 일에 상당한 제약의 끼친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레이첼이 과부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자신과 타자와의 인종 또는 계급적 차이를 염두에 두었을지를 추측해보면, 그와 같은 차이를 의식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주체로서 레이첼의 복잡성이 드러난다. 레비나스적 관점에서 보면 주체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타자의 얼굴은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맥락이든 그것에 선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타자들을 만날 기회가 차단된 채 살아온 레이첼이 ‘늙고 여윈 과부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녀가 알 수 없는 타자들을 만나고 응답하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방증하며, 이후 『델러웨이 부인』에서 클라리사 델러웨이가 일면식 없는 셉티머스(Septimus Warren Smith)의 고통을 상상하고 마음을 쓰는 장면을 예견한다. 레이첼의 상상은 과부의 비전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 서툰 추상적인 성격을 띠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처드가 “그 과부가 찬장이 바닥난 것을 발견한다면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57)이라 단정하며 타자의 부름을 몰각한다면, 레이첼은 미지의 타자를 함부로 규정하지 않으며 주체의 응답할 책임을 강조한다.

결국 레이첼의 타자의 비전, 즉, “이야기할 누군가를 찾아 창문 너머를 바라보는 여윈 흑인 과부의 이미지”는 리처드의 제국주의적 비전, “사우스 캔싱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쿵 쿵 쿵 소리내는 거대한 기계의 이미지”와 “결합할 수 없는”(57)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이에 대해 나도는 레이첼이 과부의 이미지와 기계의 이미지를 연결 짓지 못하는 것이 외로운 과부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과부의 이미지를 통해 그 기계에서 이탈하는 자신의 미래를 본다(19)고 주장한다. 소설이 레이첼의 이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다면 그녀의 운명이 유기적인 기계에 비유되는 대영제국의 영속적 움직임과 유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이첼이 여윈 흑인 과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과 제국주의 가부장제에 편입되지 않고 죽음을 맞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동치하여 그녀가 상상의 타자에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으며, 레이첼이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을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다. 레이첼이 리처드가 제시한 기계로서의 국가의 비전을 듣고 상상한 의성어 “쿵 쿵 쿵”(thumping, thumping, thumping)은 그가 강조하는 대영제국의 “지속”(continuity, 42)의 이미지를 소리로서 전달한다.<sup>8)</sup> 레이첼이 창문 너머의 타자를 상상하는 비전은 리처드가 개인을 기계의 부분으로 상정하는 전체주의의 비전 앞에서 좌절되며, 뒤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빈번히 등장하는 ‘영속하는’(go on) 제국의 이미지는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개인의 고유성(singularity)을 찾으려는 레이첼의 열망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8) 닉 몽고메리(Nick Montgomery)는 이 산업적 소음이 ‘유기적 조직’인 기계의 맥박소리에 비유되는 측면도 있지만, “강타(a blow), 곧 개인에 대한 공격 행위”로서 기계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자 원동력인 개인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한다(38). 몽고메리는 결론적으로 “자동 기계(automaton)화된 국가와 인간의 반목은 산업-제국적 복합체와 구성 주체간의 지속 불가능한 관계를 묘사한다”고 주장한다(38).

### III. 타자에 응답하는 책임(answerability)으로서 레이첼의 읽기

『출항』에서 인물들은 항상 독서를 하며 독서에 관한 대화로 자신들의 지성과 앎의 정도를 드러내는 데 익숙하다. 프리드만이 주장하듯 이 소설에서 독서는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성의 척도로, “교육의 비유이자, 성인사회로의 관문을 나타내는 형상”(109)으로 읽힌다. 레이첼의 주변인들은 그녀에게 특정한 독서목록을 권함으로써 영국 사회의 관습과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한다. 일례로 델러웨이 부부는 레이첼이 『설득』(*Persuasion*)(1817)을 비롯한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하며, 존 허스트(John Hirst)는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의 『로마제국 쇠망사』(*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Rome*)(1776)를 읽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치부한다. 그러나 레이첼은 이와 같은 독서목록을 교육과 지성의 표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독서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한 목적과 기준 하에 재단하는 이들의 교만을 지적한다. 레이첼은 존이 그녀가 기번의 스타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성을 판단하자,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을 단순히 그들의 정신으로 판단하려 하나요?” (How are you going to judge people merely by their minds?, 185), “사람은 책 읽는 것 없이도 아주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185)라고 반박한다. 이들이 레이첼에게 독서목록들을 강요하면서 각각 오스틴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인 이성애적 결합, 즉, 결혼과, 기번의 책이 대변하는 남성 중심의 문명사를 교육하려 했다면, 레이첼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빅토리안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과 규범에 순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레이첼의 읽기는 적극적인 자기교육의 행위이자 서사를 통해 알 수 없는 타자들에게 윤리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레이첼은 “집의 나머지 공간들과 구분된 . . . 신전이자 요새”(112)와 같은 ‘자신만의 방’에서 연주할 뿐 아니라 책을 매개로 “읽고, 생각하고, 세상에 도전(defy the world)”하며, 타자와 세상에 대한 앎을 넓히고자 한다. 레이첼은 그녀의 보호자들이 결



코 추천하지 않을 “현대 작품들”을 골라 읽는데, 이 책들은 고모들이 본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거친 말다툼이고 논쟁의 표식일 뿐”이며 헬렌이 젊은 여성들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혐오할” 만한 종류의 책들로 묘사된다. 레이첼은 『인형의 집』(*A Doll's House*)(1879)을 비롯한 『헨리 입센의 작품들』(*Works of Henrik Ibsen*)과 조지 매러디스(*George Meredith*)의 『십자로의 다이애나』(*Diana of the Crossways*)(1885)에 특히 몰입하는데,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들과 그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며, 레이첼이 동시대 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임을 시사한다.

레이첼이 읽기를 통해 문학작품 속 여주인공들에 응답하는 방식은 레비나스적 개념에서 타자에 반응하는 주체의 윤리적 응답능력을 보여준다. 레이첼의 독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소비하거나 지식을 넓히기 위한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일부는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방금 읽은 희곡의 여주인공이 되어”(112) 캐릭터들의 삶을 “연기”(perform)하고 재현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레이첼이 작품 속 인물들에 반응하여 텍스트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아담 뉴튼(*Adam Newton*)이 『서사 윤리』(*Narrative Ethics*)(1995)에서 설명하는 “해석의 윤리”를 체현한다. 뉴튼은 타자에 응답하는 능력이 주체를 구성한다는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텍스트에 적용하여 서사를 “윤리적 대면”(ethical encounter)의 장으로 읽는다. 레비나스적 관점에서 보면 픽션은 재현의 알레고리적 현현으로 레비나스가 경계하는 “읽”의 형식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뉴튼은 픽션에 적용되는 현상학적 인식이 픽션의 재현 능력 뿐 아니라 “더 엄중하고 충분한 힘을 가진 윤리적 책임”을 소환한다고 본다 (19). 이러한 측면에서 뉴튼이 설명하는 서사 윤리의 세 가지 카테고리, 즉, 서술의 윤리, 재현의 윤리, 해석의 윤리 중, 해석의 윤리는 이야기를 취하는 독자의 책임에 방점을 두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로 설명된다. 독자의 책임이란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재현적, 미학적 한계 바깥에 있는,” “문학 캐릭터의 무력함 (helplessness)”(21)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윤리적 응답능력을 뜻한다. 뉴

튼은 읽는 주체가 텍스트 속 타자의 무력함과 자신의 분리됨(separateness)을 인지하며 응답하는 방식이자, 서사 윤리 전체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으로 “텍스트 수행하기”(Performing the Text)를 강조한다.<sup>9)</sup> 여기서 ‘수행’이란 단순히 연대감이 불러일으키는 연극적인 수행이기보다 독자들이 “그들 자신의 특이성, 그들 자신의 분리됨,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책임”(원문 강조22)을 느끼는 것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읽기의 윤리적 딜레마는 읽기 자체의 고립적 성격에 있으나, 뉴튼은 텍스트가 레비나스적 타자와 같이 우리에게 비판적으로 읽고 응답하는 “수행을 명하며”(23) 독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때 역설적으로 홀로 이루어야 하는 읽기의 상황이 상호주체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항』에서 레이첼의 읽기가 ‘연기하다,’ ‘수행하다’는 뜻이 “perform”으로 계속 묘사되는 것이 흥미로운데, “그녀는 한 번에 며칠씩 주인공들을 연기했고, . . . 메리디스의 차례가 되면 십자로의 다이애나가 되었다”는 서술이 시사하듯, 레이첼의 독서는 이야기에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 . . 이것이야. 진실은 무엇이지? 이 모든 것의 진실은 뭘까?”(112)와 같이 텍스트와 타자에 반응하는 적극적인 수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레이첼의 읽기는 텍스트 속 인물들과 상호관계를 맺는 수행을 동반하며 윤리적 주체로서의 응답능력을 드러낸다.

레이첼은 또한 독자의 읽는 행위가 가진 책임의 양면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뉴튼은 서사를 통한 윤리적 대면이 “역설”(paradox)을 수반한다고 설명하는데,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노수부의 노래」(“The Rime of Ancient Mariner”)가 결혼식 하객을 사로잡아 그 마음을 물들였듯이, 독자로서 우리는 서사의 물들이는 힘(contaminating power)에 노출되면

9) 뉴튼이 주목하는 소설 중 대표적으로 셔우드 앤더슨(Sherwood Anderson)의 『와인즈버그, 오하이오』(*Winesburg, Ohio*)(1919)는 서술자의 지배적 역할이 비워지고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소설에서 단편 「외로움」(“Loneliness”)과 같이 “말을 거는”(addressive) 텍스트들은 “픽션과 현실 사이의 존재론적, 인식론적인 경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모방적, 수행적 행위(performative acts)를 요청한다”(22).

서 그 이야기에 종속되는 한편, “서사가 가진 권력의 주인이 바뀌어 우리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21)한다는 것이다. 레이첼의 읽기는 서사에 단순히 굴복하지 않으며 픽션의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의 경계를 혼돈하지 않는다. 서술자는 레이첼이 책을 덮고 내쉬는 “깊은 숨”이 “항상 상상의 세계로부터 현실세계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놀람의 표현”(112)이라고 덧붙인다. 레이첼이 입센과 메리디스를 읽을 때 텍스트 속 주인공들의 상황에 몰입하지만, 관찰자인 헬렌이 지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그러나 단지 연기만이 아니며 인간 내면에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는”(112) 주체로서의 ‘수행’을 보여준다. “그녀의 생각은 노라로부터 벗어나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 작품이 그녀에게 암시해준 것들, 여성과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113)는 서술이 시사하듯, 레이첼의 읽기는 단순히 자신을 작중 인물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자신의 인생에 시사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지속된다.

비평가들은 레이첼이 작품 속 인물들에게 반응하며 관계를 맺는 양상을 주로 “동일시”라는 분석으로 통일해 왔으며, 그녀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도 독자로서 주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작품들에 함몰되는 수동성 때문이라 평한다. 대표적으로 프리드만은 “그녀가 읽는 것들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버릇”(121), 곧,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읽는 행위가 텍스트가 삶이 되고 삶이 텍스트가 되는 동일시를 수반하는 것”이 문제적이라 지적하며, 레이첼의 독서에 “비판적 거리”가 결여된 것이 결국 그녀를 가부장제의 폭압을 완전히 거부하는 길, 곧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프리드만은 읽기의 교육학적 관점에서 레이첼이 삶과 텍스트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텍스트성으로부터 “그녀의 성장을 위한 방책을 협상하지 못했다”(121)고 진단한다. 프리드만의 이와 같은 비판은 레이첼이 테렌스가 밀턴의 결혼 가면극 『코머스』(*Comus*)(1637)를 낭송하는 것을 들으며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곧 그녀의 열병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상징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밀턴의 『코머스』는 은색 의자에 갇힌 여인이 물의 정령 사브리나에 의해 구출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레이첼은 시구에서

가부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왕과 왕국의 이름인 “브루트”와 “로크린,” 속박의 의미를 더하는 “재갈” 등의 시어들을 들으면서 “괴로움을 느끼며” 눈앞에 불쾌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한다. 주목할 것은 레이첼의 반응이 테렌스가 제시하는 읽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테렌스는 텍스트의 의미를 작가의 권위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밀턴의 시구들은 본질과 형태를 갖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 그저 그의 시구들을 들을 수 있었고, 누구라도 시 구절들을 거의 이해할 수 있다”(308)고 설파한다. 이와 같은 테렌스의 읽기는 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며 독자가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개별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레이첼이 밀턴의 시어들을 듣고 괴로워하며 타격을 받는 것은, 이후 그녀가 열병에 걸린 첫째 날 물이 침대의 발치까지 차오르면서 이 시구절들이 맴도는 환영을 보는 것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연결성 때문에 시어들의 의미가 레이첼의 읽기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올래거가 주장하듯, “밀턴 시의 상징적 위협과 더 명확히 감지되는 테렌스와 함께할 가정 생활의 위협”(66)에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이첼이 밀턴 시에 영향을 받은 것을 단순히 그녀의 수동성과 텍스트와의 동일시 때문이라 해석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앞서 『출항』의 서술자는 레이첼이 읽는 자연주의적 성격의 책들, “소설의 목적이 여성의 타락을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리는 것으로, 만약 독자의 불편함(discomfort)이 그 목적달성의 증거다 된다면 그것은 성취되었다”(113-14, 필자 강조)고 하는데, 레이첼이 작중 인물들의 ‘무력함’에 반응하고 그들의 이야기의 힘에 ‘노출’되면서 겪는 “불편함”은 뉴튼이 말하는 윤리적 읽기의 증거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뉴튼은 서사를 통한 윤리적 대면이란, 읽음으로 겪게 되는 위협을 피하고 독자의 역할 속에서 안전을 찾기 전에 텍스트 속 타자의 “불편한 근접성”(the uncomfortable proximity, 280)을 마주하고 감당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이는 레비나스가 설명하는 윤리적 주체의 근본에 부합한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상호주체적인 접촉에

따르면, “자아는 정신보다는 피부로 생각되는데, 타자들과의 관계가 이성적인 결정과 선택에 우선하기 때문이다—그것은 먼저 노출로 느껴지는 것이다. 읽는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다”(it is first *felt* as exposure. To read is to be vulnerable. [뉴튼 65], 원문 강조). 취약해지는 것이 주체의 수동성의 다른 표현이라면, 타자 윤리에서 수동성이란 일반적으로 갖는 부정적인 함의 대신 오히려 타자에게 반응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양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레이첼이 읽기의 결과 ‘취약해지는 것’은 단지 밀턴 텍스트의 가부장적 위협에 자신을 투사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자아가 텍스트 속 타자에 반응하고 그들의 이야기 속 고통과 부침에 ‘노출’된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윤리적 독자로서 보이는 “수동적 책임”(passive culpability, 뉴튼 22), “응답의 부정적 능력”(negative capability of response, 20)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갖는다.

#### IV. 영속하는(Going on) 전체주의적 비전에의 저항

레이첼이 타자와 맺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비판을 받은 지점은 소설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원주민 마을 탐방장면에서 그녀가 원주민 여성들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다. 영국인 무리의 식민지 탐방은 매년 마을을 돌아보면서 원주민들이 만든 물건들을 구매하는 관광 이벤트로 묘사된다. 마을에 당도한 영국인들은 원주민 여인들이 무언가를 만들며 노동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돌아보는데, 레이첼은 그곳을 나오면서 “나무들 아래 앉아 있는 저 여인들, 저 나무들과 강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So it would *go on* for ever and ever, she said, women sitting under the trees, the trees and the river. [필자 강조], 270)이라 언급한다. 평자들은 이에 대해 원주민 여성들이 노동과 더불어 울고 있는 아이들을 젖먹이는 모습을 보고서 레이첼이 자신에게 임박할 모성(maternity)의 굴레를 예감하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분석해왔다. 나도는 이와 같은 동일시가 “식민 여성 주체

를 레이첼의 페미니즘적 개인주의와 가부장제의 저항을 일깨우기 위한 대 비자(foil)이자 산파로 이중 전유”(21)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에스티는 이 “모호한”(oblique) 동일시에 대해 “소설 자체가 범문화적 동일시가 무효함을 고통스럽게 입증”(129)한다고 평한다. 이와 같은 비판들은 후기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레이첼의 동일시가 제국주체인 자신과 식민 주체인 원주민 여성들의 불균형한 관계를 간과하며, 그로 인해 그녀가 품고 있는 여성과의 연대, 가부장제에의 저항이라는 긍정적 함의들이 근본적으로 무력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원주민 마을 탐방 장면에서 레이첼이 탐험에 나서는 제국 주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설정이다. 탐험을 주도하는 플러싱 부인(Mrs. Flushing)이 원주민 여성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행태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는 발언을 하며(“이 사람들은 이것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싼 값으로 구하지요. 그러고는 런던의 멋쟁이 여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222) 계획을 세우는데, 서술자는 이에 대한 레이첼의 반응을 생각한다. 그러나 탐험계획에 대해 “레이첼은 열성적이었는데 실제로 그 생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녀를 즐겁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항상 강을 보고 싶다는 커다란 욕망을 갖고 있었다”(222)는 서술은, 분명 『어둠의 심연』에서 콩고 강 탐험을 욕망했던 말로우를 상기시키며 레이첼을 제국주의 탐험자의 연장선상에 놓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원주민들과의 대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국 주체들이 식민 타자를 마주하며 그동안 전제해온 자신들의 주체성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다. 식민 주체들이 제국 주체의 시선의 객체로 대상화되는 일반적인 식민 소설의 수사와 달리, 울프는 탐방의 주체인 영국인들과 마치 전시된 것처럼 관찰 당하는 식민 주체들 간의 주객 관계를 교란하고 전복시킨다. 특히 서로의 몸에 교차하는 시선에 대한 서술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타자의 현현에 반응하는 순간에 대한 묘사로 읽을 수 있다. 앞서 영국인들은 강을 따라 식민지의 심장부로 들어가면서 자신들에게 낯선 자연 풍경들을 무질서하고 비문명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영국적 풍경의 질서로 편입하려

한다. 이국 자연의 타자성을 자신들의 질서와 삶의 범위로 환원하는 이들의 수사에 레이첼의 목소리는 들어있지 않지만, 대면 장면에서 레이첼은 예외 없이 제국 주체의 일원으로서 식민 타자들의 반대항에 있는 “그들”에 포함되며, 타자의 얼굴에 직접 ‘노출’된다.

그들은 그러나 잠시 몰래 쳐다보다가 눈에 띄게 되었으며, 플러싱 씨가 개간지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깡마른 위엄 있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골격과 움푹 들어간 곳들은 플러싱 씨 몸의 형태가 추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었다. 여인들은 낮은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잠시 손을 멈추었으며 그들의 길고 좁은 눈은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움직임 없이 무표정한 시선으로 빙그르르 미끄러져 그들에게 고정되었을 뿐이었다. 여인들은 다시 손을 움직였지만, 쳐다보는 눈길은 계속되었다. 그들이 걸으며 구석에 있는 총들과 마루에 놓인 사발들과 물건 더미들이 보이는 오두막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눈길이 따라왔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기들의 진지한 눈이 그들을 응시했으며 늙은 여인들도 역시 빨리 바라보았다. 그들이 한가로이 산책할 때, 적대감이 서린 호기심에서 여인들은 겨울 파리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다리로 몸으로 머리로 계속 시선을 던졌다. (269)

위 대목에서 제국 주체가 당연시하던 시선과 인식의 우위는 식민 타자와의 맞대면속에서 허물어진다. 앞서 영국인들이 자신을 “세상을 식민지 삼도록 파견된 위대한 선장들,” “개척자들”(colonists)과 같이 우월한 제국 주체로 설정하고 식민 주체를 열등하고 미개한 존재로 환원하였다면, 이 장면은 이들이 오히려 식민 주체의 알 수 없는 시선을 되받고 의식하면서 자신들을 우스꽝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심리적 변화를 보여준다. 레비나스는 주체에 응답을 요구하는 타자의 얼굴을 “벌거벗음”(nakedness/nudity)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벌거벗음’이란 타인의 무언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할 어떤 자질(qualification)에서도 벗어나는 타자성”을 뜻하며, 벌거벗은 얼굴은 문화적·사회적 역할이 감

추는 얼굴과 달리 나와 타자에게 동일한 “근본적인 빈곤”을 드러내는 얼굴이다(Waldenfels 71). “얼굴의 벌거벗음은 곧 궁핍”(destituteness)이며, 윤리적 주체로서 타자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공통된 취약함, 곧 “굶주림을 인식하는 것이다”(to recognize a hunger, *TI* 75). 또한 타인의 얼굴은 나의 힘, 시선, 인식을 통해 내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내게 방향을 돌려 드러내며 그것이 곧 얼굴의 벌거벗음”(The face has turned to me—and this is its very nudity; *TI* 74-75)이다. 주체와 타자의 윤리적 관계는 타자성의 현현인 타자의 얼굴이 ‘벌거벗음,’ 즉, 그 자체로 내게 드러나고 응답을 명하는 현상에서 시작한다. 다시 말해, 타자의 현상학은 의식이 아닌 감각으로 타자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주체가 되는 시발점이자 자신 또한 타자로서 상대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상호주체성을 촉발한다. 원주민 남성의 마른 골격, 즉 타자의 몸의 벌거벗음이 영국인들로 하여금 그들 “몸의 형태가 추하고 부자연스럽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서술은, 비록 순간에 불과하나 자신들이 당연시해온 우월한 주체성을 의문시하고 낮설게 느끼는 심리를 보여준다.

되돌아오는 시선으로서 타자의 얼굴은 영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본질, 얼굴—혹은 얼굴의 확장인 몸—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도록 위협하기에, 원주민들의 응시는 “겨울 파리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과 같은”(269) 실제로 그들의 피부에 감지된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원주민들의 시선을 “움직임 없이 무표정한 시선”으로 한정하지만, 이는 역으로 식민 타자의 외면할 수 없는 ‘얼굴’ 앞에서 이들이 주체로서 취약함을 느낌을 방증한다. 이처럼 영국인들이 느끼는 낮설과 위기의식은 “노출”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식민지 탐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보려 하는 지나친 것, 낯선 사람들 속에서 몸을 드러내야 하는 불편 등으로 반대했던 헬렌의 시점을 통해 거듭 표현된다. 원주민 마을에서 돌아선 직후 헬렌이 “재해의 예감에 노출되는 것”(270, 필자 강조)과, “이번 탐험여행을 진척시킨 것에 대해, 지나치게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그들 자신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 플러싱 부부를 비난”(필자 강조)



하는 장면은, 제국 주체들이 식민지 탐방에서 아무런 정신적, 육체적인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에 대한 민감한 비판이자, 이후 레이첼의 열병에 대한 복선이기도 하다.

레이첼의 원주민 여성들에 대한 언급은, 이들과의 대면 직후 테렌스와 그녀가 보이는 심경의 변화와 더불어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다. 앞서 인용한 대목에서 보듯 울프의 서술자는 시선의 주체와 객체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고 뒤집는 서술을 통해 식민 주체를 열등한 존재로 대상화하는 제국주의 관점을 무력화하고 낮설게 한다. 영국인들을 압도했던 원주민들의 ‘얼굴’은 그들이 곧 시선을 거두고 일상으로 돌아감에 따라 사라진다. 영국인들과 원주민이 서로에게 노출되던 상호작용이 잠시 동안의 것으로 그치자, 테렌스와 레이첼이 느끼는 알 수 없는 우울감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을 바라보기를 그만둔 여인들의 모습이 평화롭고, 처음에는 아름답기조차 했으나, 이제는 그들을 매우 냉담하고 우울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269). 다음 문장에서 “이것이 우리를 하찮은 (insignificant) 것처럼 느끼게 하는군요”(270)라는 테렌스의 코멘트는, 먼저는 그들이 원주민과의 대면을 통해 제국 주체로서 자신들의 우월성이 아닌 그 허상을 느끼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타자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체를 주체로 만드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부재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레이첼의 발언은 테렌스의 이 코멘트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 등장한다. “나무들 아래 앉아 있는 저 여인들, 저 나무들과 강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예요.” 앞서 살폈듯, 레이첼의 이 모호한 언급에 대해, 그녀가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압박한 모성의 운명을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억압 하에 있는 원주민 여성들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 다수의 평자들의 해석도 문맥적 상황들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원주민들과의 대면 장면은 레이첼이 테렌스와 서로 애정을 확인하여 약혼에 이르는 장면 바로 직후에 위치한다. 위 언급이 결혼 플롯과 식민 탐방 서사가 교차하는 맥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직관한 모성의 역할에 감정이입한다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 레이첼이 제국 주체로서 “자신의

계층적 우위를 분명히 한다”(올래거67)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레이첼이 원주민 여성들의 노동이 전시된 듯한 모습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타자와의 동일시가 아니라, 소설 초반 리처드 델러웨이가 대영제국의 영속과 확장을 “계속되다”(goes on)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 가능하다. 리처드는 “영국 역사의 비전”을 “지속”으로 설명하며, 제국주의의 비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클라리사와 같이 ‘가정의 천사’로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그래서 리처드와 같은 제국주의자들을 생산해낼—여성의 역할, 즉, 모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산타 마리아의 식민 역사를 설명하는 7장 초반은 그러나 대영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팽창되어왔다는 리처드의 신념이 허상에 불과함을 폭로한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를 미리 점령하고 있었던 스페인, 이후 참전한 포르투갈과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했으며 결국 몰래 빠져나온 역사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English history then denies all knowledge of the place,” 80). “영국 제국의 팽창에 호의적”이었던 시대가 잠시나마 가능했던 것은 (80) 여자들이 유입되어 그들이 번식하고 후대가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설은 윌로우비와 리처드,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변모하는 테렌스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공모를 가시화한다. 소설 속 사회는 그 공모를 뒷받침하는 기제로서 여성의 모성에 집착하며, 이에 대한 레이첼의 공포와 주저함이 이야기 곳곳에서 암시된다.

레이첼이 테렌스와 약혼하는 과정에서 무리의 또다른 커플인 수잔(Susan)과 아서(Arthur)를 생경하게 보는 반응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수잔과 아서는 레이첼 커플에 한 발치 앞서 이성애적 결합을 예시하는데, 소설은 이들의 결혼 플롯을 두 개별자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한 과정이 아니라 성인남녀가 사회의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의례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 그린다. 레이첼 커플이 수잔과 아서가 언덕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에서, “수잔의 표정으로는 그녀가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겪은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었다”(128), “숫양이 암양에게 뿔을 내밀 듯이 아서가 다시 몸을 돌려 그녀에게 달려들자

휴잇과 레이첼은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섰다” 등의 서술은, 레이첼(과 수잔)이 아직 성(sexuality)에 무지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성에게 사랑과 성이 그들의 주체성의 발현으로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제도와 재생산을 위한 수순으로 예정되는 부조리를 시사한다. 이어 레이첼은 혼기가 지난 여성으로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잔이 가사일로 바쁜 자신의 삶과 본성을 만족스러운 듯이 묘사하자, 불현듯 수잔의 미래를 “살찌고 다산하는 여인으로 성장”(247)한 모습으로 상상하며 “심한 반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레이첼은 점차 영국인들 무리 속에서 여성의 삶이 개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제한되는 사회적 억압을 감지하며, 이들의 일률적인 삶과 사고방식에 반발한다. 레이첼이 약혼 후 테렌스와 엇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수잔-아서 커플의 결합을 반면교사로 삼은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두 사람을 발견했을 때 “레이첼은 죽은 듯이 멈춰 섰다”(Rachel suddenly stopped dead, 127)는 서술은 여성에게 정해진 결혼의 길을 가지 않는 그녀의 미래를 암시하기에 의미심장하다.

레이첼이 느끼는 억압은 약혼 후 테렌스가 점차 가부장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이들 사이에 균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의 발언을 통해 반복된다. 테렌스는 레이첼이 “시대에 뒤진 문제극들, 이스트 엔드에서의 비참한 삶의 묘사들”(276) 대신 시를 읽어야 하며, 그녀가 연주하는 음악이 “단지 빛속에서 뒷다리로 돌고 있는 불행한 늙은 개”(276)와 같다고 비하하는 등 레이첼의 일거수일투족을 제한하고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 그는 자식을 여섯 낳은 쏘버리 부인(Mrs. Thornbury)의 “근본적인 소박함”을 미덕으로 칭찬하고 그녀를 “달빛에서 속삭이는 커다란 늙은 나무, 혹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a river going on and on and on? [필자 강조], 278)에 비유하며 이상적인 아내의 상으로 미화한다. 이에 더해 테렌스는 쏘버리 부인이 모성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마치 남편 랠프 쏘버리(Ralph Thornbury)가 가장 젊은 영국령 군도의 총독인 것의 토대가 된 것처럼 침언하며, 제국주의 가부장제가 여성의 모성을 착취하는 단면

을 드러낸다. 여기서 테렌스가 쏜버리 부인을 비유한 “나무 혹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의 이미지는, 앞서 레이첼이 원주민 여성들을 영원히 지속될 나무와 강에 비유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를 심화해서 해석한다면, 테렌스가 그녀의 말을 자신의 비유에 끌어오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공모를 재확인시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레이첼은 테렌스가 자신에게 주입하려는 이상적인 여인상, 즉, 다산하는 모성의 역할에 반발하며, “저는 열한 명의 아이들을 갖지 않을 거예요. . . 노부인의 눈길도 지니지 않을 거예요”(278)라고 언명한다.

이처럼 리처드로부터 시작된 ‘계속되다’는 뜻의 “goes on”은 레이첼이 경계하고 비판하는 제국의 지속의 비전과 “세상이 계속되기(*go on*) 위해 행해져야 하는 일(274, 필자 강조), 곧 반성 없이 돌아가는 사회체제를 함축하며 소설을 관통해 변주된다. 남편이 죽은 후 재산을 축적하며 살아온 페일리 부인(Mrs. Paley)은 조카인 수잔의 약혼 직후 자신이 유일하게 “보통 사람보다 낫다”(166)고 인정하였으나 오래전 요절한 두 사람—눈앞에서 익사한 남동생과 첫 출산 중 사망한 친구—을 떠올리고는, “이기적이고 늙은 우리들은 계속 살아간다”(we old and selfish creature *go on* [필자 강조], 166)는 독백과 함께 회한에 젖는다. 페일리 부인이 죽음으로 멈춰진 “그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일종의 존경”과 사회의 위선과 관습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온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은, 에스티가 이 소설의 반-성장서사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제시한 “정지된 성장”(stalled *Bildung*, 36)을 상기시킨다. 레이첼의 모친 테레사 역시 때이른 죽음을 맞은 인물로, 헬렌이 월로우비의 가부장적 억압과 괴롭힘이 배후에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 또한, 그가 표상하는 제국주의 가부장제의 폭력과 멈춰진 젊음의 대립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이첼의 때이른 죽음은 리처드가 주창하는 대영제국의 맹목적인 영속의 비전, 그리고 그 사회의 쳄바퀴 같은 질서에 편입되는 의미로서의 성장에 대한 저항을 포괄한다.

## V. 나가며

레이첼은 자신의 멘토이자 친구가 된 헬렌과 소통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불현듯, 그녀가 “생각도 감정도 애정도 없으며 존재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248)고 비난한다. 이는 그녀가 헬렌을 포함하여 그간 영국인들의 위선과 오만에 대해 품은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으로, 영국인 중상류층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나와 타자의 고유성을 등한시하는 갇힌 세계에 대해 던지는 일침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레이첼이 회고하는 리치몬드외의 고모들의 삶은 이와 정반대로 묘사된다. “그들은 세상을 느껴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마음을 쓰지요. 나이 든 독신 여성들은 언제나 일들을 하고 있어요”(they feel things. They do mind if people die. Old spinsters are always doing things, 202). 레이첼이 “사실적”(real)이라고 느낀 고모들의 삶은, 응답을 요하는 타자들의 얼굴을 늘 환대하며 고통 중의 타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윤리적 주체로서 행동하는 삶이다. 비록 고모들의 삶의 양식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레이첼은 하루 네 번의 식사시간을 엄수하고 많은 시간을 청소하는데 소모하는 등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고모들의 틀에 박힌 일상을 “아주 격렬하게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리고 싶은”(202) 것으로 말한다—그녀는 고모들의 삶에 모종의 아름다움과 허상이 아닌 실질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언명한다.

레이첼은 (고모들이) 월위쓰 지역으로, 다리가 불편한 일용잡역부에게로, 이런저런 모임들로 여기저기 다닌 작은 여정들,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분명한 관점에서 지체없이 꽃피웠던 소소한 자선활동과 비이기적인 행동들, 그들의 우정, 그들의 기호와 취미들을 회고해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모래 알갱이처럼 수많은 나날 동안 떨어져고 떨어져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견고한 덩어리, 배경을 굳건히 쌓아 올리는 것을 보았다. (202)

레이첼이 이상적으로 떠올리는 사람과 사회의 모습이 자선활동을 일상의 중심에 두는 “나이 든 독신 여성들”의 삶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레이첼이 최종적으로 가 닿고자 한 비전은 리처드와 테렌스 같은 가부장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가정의 천사’나 쏘버리 부인과 같이 다산하는 모성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응답의 책임을 지는 윤리적 주체로 연결되는 사회, 그렇게 무수한 개별자들이 더불어 한 덩어리를 이루는 사회의 비전이다. 타자의 얼굴에 닿고자 하는 주체의 상상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됨으로써 윤리적 주체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출항』에서 레이첼의 수동성은, 미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호명하는 타자의 얼굴에 노출되고 취약해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의미로서 윤리적인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대)

## 인용문헌

- 손영주. 「“레이첼은 방에 앉아 전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 버지니아 울프의 『출항』이 탐색하는 ‘무위’(idleness)와 여성의 성장의 문제」. 『영미문학페미니즘』, 26권 2호, 2018, pp. 59-92.
- 울프, 버지니아. 『출항』. 진명희 옮김, 숲, 2019.
- Berman, Jessica Schiff. “Ethical Folds: Ethics, Aesthetics, Woolf.” *Modern Fiction Studies*, vol. 50, no. 1, 2004, pp. 151-72.
- Carr, Helen. “Virginia Woolf, Empire and Ra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ginia Woolf*, edited by Susan Sellers, 2<sup>nd</sup> ed., Cambridge UP, 2010, pp. 29-48.
- Choi, Seokyeong. *Impossible Narration: The Unknowable Other and the Ethical Imagination in Modernism*.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2021.
- Conrad, Joseph. *Heart of Darkness*. Penguin, 2007.
- Esty, Jed. *Unseasonable Youth: Modernism, Colonialism, and the Fiction of Development*. Oxford UP, 2013.
- Friedman, Susan Stanford. “Spatialization, Narrative Theory, and Virginia Woolf’s *The Voyage Out*.” *Ambiguous Discourse: Feminist Narratology and British Women Writers*, edited by Kathy Mezei, The U of North Carolina P, 1993, pp. 286-335.
- . “Virginia Woolf’s Pedagogical Scenes of Reading: *The Voyage Out*, *The Common Reader*, and Her Common Readers.” *Modern Fiction Studies*, vol. 38, no. 1, 1992, pp. 101-25.
- Högberg, Elsa. *Virginia Woolf and the Ethics of Intimacy*. Bloomsbury, 2020.
- Levinas, Emmanuel.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lated by Alphonso Lingis, Duquesne UP, 1998. Abbreviated as *OTB*.
- . *Totality and Infinity: And Essay on Exteriority*. Translated by Alphonso

- Lingis, Duquesne UP, 1969. Abbreviated as *TI*.
- Montgomery, Nick. "Colonial Rhetoric and the Maternal Voice: Deconstruction and Disengagement in Virginia Woolf's *The Voyage Out*."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46, no. 1, 2000, pp. 34-55.
- Nadeau, Ashley. "Exploring Women: Virginia Woolf's Imperial Revisions from *The Voyage Out* to *Mrs. Dalloway*." *Modern Language Studies*, vol. 44, no. 1, 2014, pp. 14-35.
- Newton, Adam. *Narrative Ethics*. Harvard UP, 1995.
- Prigozhin, Aleksandr. "Contagion of the World: Minor Intimacies in *The Voyage Out*." *Twentieth-Century Literature*, vol. 66, no. 3, 2020, pp. 283-304.
- Waldenfels, Bernhard. "Levinas and the Face of the Other."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vinas*, edited by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Cambridge UP, 2002, pp. 63-81.
- Wollaeger, Mark. "Woolf, Postcards, and the Elision of Race: Colonizing Women in *The Voyage Out*." *Modernism/modernity*, vol. 8, no. 1, 2001, pp. 43-75.
- . "The Woolfs in the Jungle: Intertextuality, Sexuality, and the Emergence of Female Modernism in *The Voyage Out*, *The Village in the Jungle*, and *Heart of Darkness*." *Modern Language Quarterly*, vol. 64, no. 1, 2003, pp. 33-69.
- Woolf, Virginia. *Mrs. Dalloway*. Harcourt, 1981.
- . *The Voyage Out*. Penguin, 1992.



**Abstract**

The Ethics of Failed Bildung: Reconsidering Rachel's Passivity as  
an Essence of Ethical Subjectivity in *The Voyage Out*

Seokyeong Choi

Virginia Woolf's first novel *The Voyage Out* (1915) leaves us a depressive ending where the young heroine Rachel Vinrace suddenly falls into a fever and meets an untimely death after her voyage to a native village. Critics have given mixed reactions to this *anti-Bildung* with Rachel's helpless death, unwillingly admitting it as an inevitable function of plot against the imperial and patriarchal violence the novel attacks. Interestingly, as the critics blame Rachel for her passivity and lack of voice, they commonly criticize and reduce Rachel's ways of relating with others as an "identification," while undermining the various ways in which Rachel respond to the unknowable others. This paper aims to reconsider Rachel's passivity as an essential nature of an ethical subject in the perspective of Levinasian ethics. Immanuel Levinas claims ethical subjectivity based on her responsibility toward the Other. The subjectivity of a subject is to be vulnerable to the face of the other who appears as a nudity. Being passive and vulnerable, Rachel responds to the naked, suffering face of others beyond the socio-political hierarchies of society and even beyond the limits of literary representation through her act of reading. Rachel also resists the imperial vision of 'going on,' a deceiving image of continuity, which obsessively confines the being of women only to a maternal role of sexual reproduction. Rachel's failed Bildung rather suggests her possibility of being an ethical subject by her ongoing attempt to envision and reach others' life while resisting the violence of imperial totalitarianism

imposed on the construction of an individual's singularity.

■ **Key words:** *The Voyage Out*, ethical subject, ethical passivity, the face of the Other, imperial patriarchy, anti-Bildungsroman  
(『출항』, 윤리적 주체, 윤리적 수동성, 타자의 얼굴, 제국주의 가부장제, 반-성장서사)

논문접수: 2022년 6월 3일

논문심사: 2022년 6월 6일

게재확정: 2022년 7월 29일